

<이게 무슨 일이야!> 책 출간 기념 전시 프로젝트 리포트

전시 장소: 성수동 프로젝트 렌트 01

전시 일정: 2022.06.28 (화)~ 07.10 (일) 매일 12시~20시

전시 내용: 우아한형제들 일고민 상담소, <이게 무슨 일이야!> 책 소개

목차

[2022년 5월 23일 전시 D-36](#)

[2022년 5월 24일 전시 기획 회의](#)

[2022년 5월 25일 일 고민 질문 모으기](#)

[2022년 5월 26일 전시 디자인 컨셉 회의](#)

[2022년 5월 30일 전시 기획, 디자인 계속 고민중](#)

[2022년 5월 31일 전시 기획 디자인 회의](#)

[2022년 6월 2일 전시 기획 디자인 피드백 & 디벨롭 회의](#)

[2022년 6월 3일 디벨롭 회의 이어서...](#)

[2022년 6월 5일 휴일에도 일하는 나... 멋있다\(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뜻\)](#)

[2022년 6월 7일 디자인 피드백 회의](#)

[2022년 6월 8일 카피 정리](#)

[2022년 6월 9일 책 실물 보고 가세요~](#)

[2022년 6월 10일 부채 대전 to 부채 청산](#)

[2022년 6월 10일 디자인 3차 리뷰](#)

[2022년 6월 14일 세부 디자인 작업중](#)

[2022년 6월 16일 디자인 출력 전 최종 체크](#)

[2022년 6월 17일 오늘의 고민은 고민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2022년 6월 23일 전시 크레딧](#)

[2022년 6월 27일 전시 설치중!!](#)

[2022년 6월 28일 당신의 일고민을 삼니다 전시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전시 2일차, 눈 뜨자마자 날씨 확인](#)

[2022년 7월 1일 전시 4일차, 해뒀다!](#)

[2022년 7월 2일 전시 5일차, 우리는 폭염 아니면 폭우...](#)

[2022년 7월 5일 전시 7일차, 천개의 고민](#)

[2022년 7월 6일 전시 8일차, 추가 발주를 넣었다.](#)

2022년 7월 8일 전시 10일차, 책이 팔린다

2022년 7월 11일 전시가 끝나고 난 뒤~

2022년 5월 23일 전시 D-36

- 프로젝트 리포트 작성 시작
- 리포트 공개 결정!

2022년 5월 24일 전시 기획 회의

- 장소가 협소해서 하나에 집중해야 할 거 같다
1. 질문(일고민) 콘텐츠에 집중하자
 - 일고민이 보여지는 형식 / 가져가는 경험이 달라야 한다
 - 현재: 종이 앞에 질문, 종이 뒷면 답변 : 엽서의 형태가 디폴트
 - 서랍장 -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보여주기 / LP판도 비슷한 느낌
 - 책 등 - 이게 무슨 일이야! 책 커버를 질문으로 싸고, 관련 페이지에 체킹하기, 책에 없는 질문에는 엽서를 책갈피 처럼 끼워서?
 - 포스트잇?
 - 스티커?
 - 키링, tag - 가방에 걸 수 있게
 - 엽서 형식도 좋아요. 앞에는 예쁘게 배민폰트 써서, 뒤에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엽서로
 2. 통유리 (전시장 입구는 무슨 메시지를 넣을까?)
 - 인스타그램에 인증하고 싶은 비주얼,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 일고민 상담소 - 그런데 진짜 '상담'을 기대하면 어떡해? - 디테일을 살려서 상담소의 느낌을 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일고민 상담소

-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고 있나요? - 후킹하긴 한데 책의 일 부분만 강조되는 느낌이 아쉽
 - <이게 무슨 일이야!> 전시 이름이 잘 드러나서 나 여기 다녀감 느낌이 나는 것도.
 - 스탭들이 가운을 입는다 (가운마다 고민 키워드가 적혀있음)
 - 스탭들이 간혹 히든 답변 같은 것을 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해도 재미있을 듯
3. 동선
 - 입구로 들어와서 오른쪽 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생각
 - 오른쪽 벽면에 질문들

- 가운데 포스
- 왼쪽 벽면에 책 미리보기

4. 경험

- 스티커
- 도장
 - 결제 시 영수증에 찍어주기 / 원하는 도장을 엽서에 찍어갈 수 있도록
 - 문구는 책,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에서 고르자
- 선물
 - 깜짝 선물 (주변 가게와 연계해서 준비해볼까?)
 - 옷차
- 판매되는 책은 메시지 사인북

5. 전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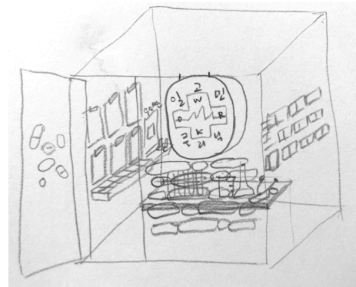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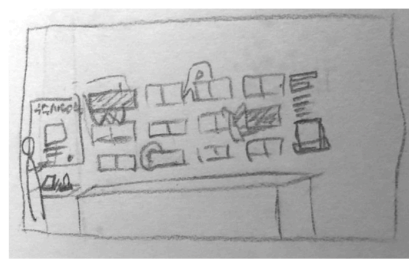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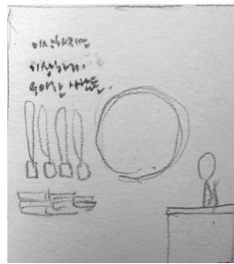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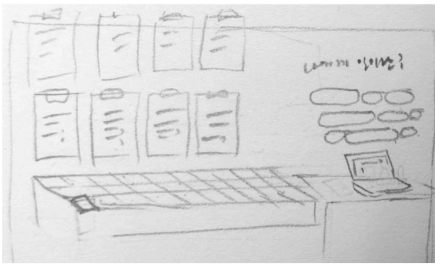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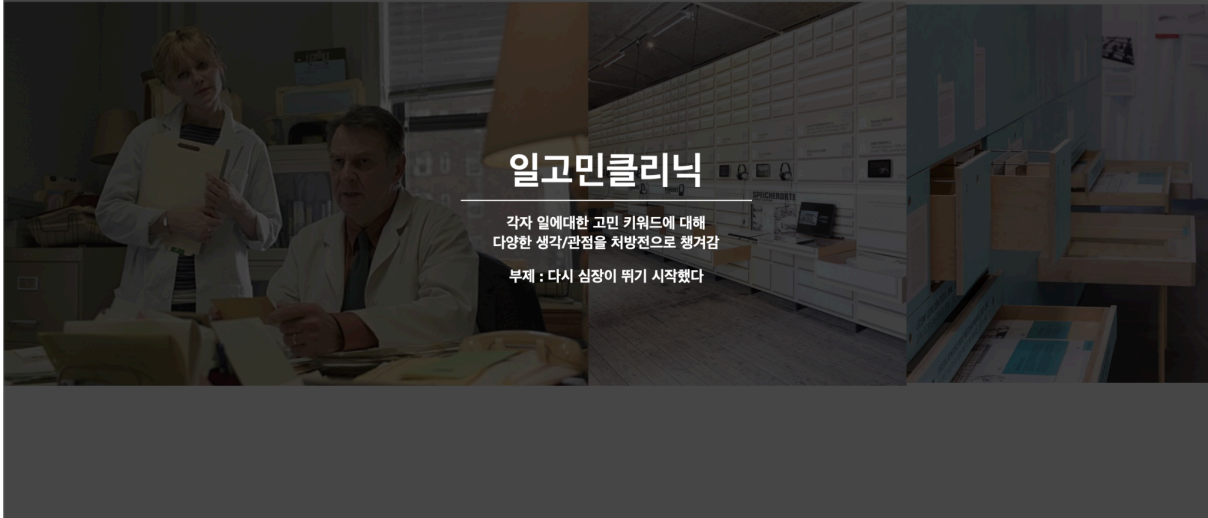
- 방문객: 프로젝트 렌트에 문의 **최경진**
- 인증수: #이게무슨일이야 #일고민상담소 100개 이상
- 판매 부수: 북스톤에 문의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보자

6. 사전홍보 - 상세화 필요 @성호경

- 사전등록이벤트 할까 말까
- 혜택 1) 전시 장 방문시 선물 증정 그리고?

2022년 5월 25일 일 고민 질문 모으기

- 책을 중심으로 한 질문 **20개 세팅**
- 브랜딩실에서 구글시트로 **80개** 의견 받기
- 고민에 대한 답변은 1) 오프라인에서 출근자들 대상으로 모으기 2)슬랙으로 개별 요청
- 으으 내일 프로젝트 리포트 공개할 건데 떨린다;;
- [프로젝트 리포트 공개 포스트](#)



- 일고민 클리닉
장: 성수동의 수많은 팝업 중에서 눈에 띄는 것 같음
단: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라 공감, 위로 ->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
- 일고민상담소
성수동 팝업들 사이에서 좀 묻힐 거 같지만 그렇게 안되도록 클리닉의 보여주는 방식을 가져다가 써보자.
'사람' 개개인이 드러나기 보다는 질문이 더 드러나도록, 사람 그래픽은 빼자. -> 포토존으로 아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 NEXT

<참여섹션>

- 스티커 사진기는 어때? - 사진찍는 거 다들 좋아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
- 고민이나 답변을 남기는 참여 섹션이 필요할까? - 가능한 하나 공간적 제약으로 우선순위는 아님

<오늘의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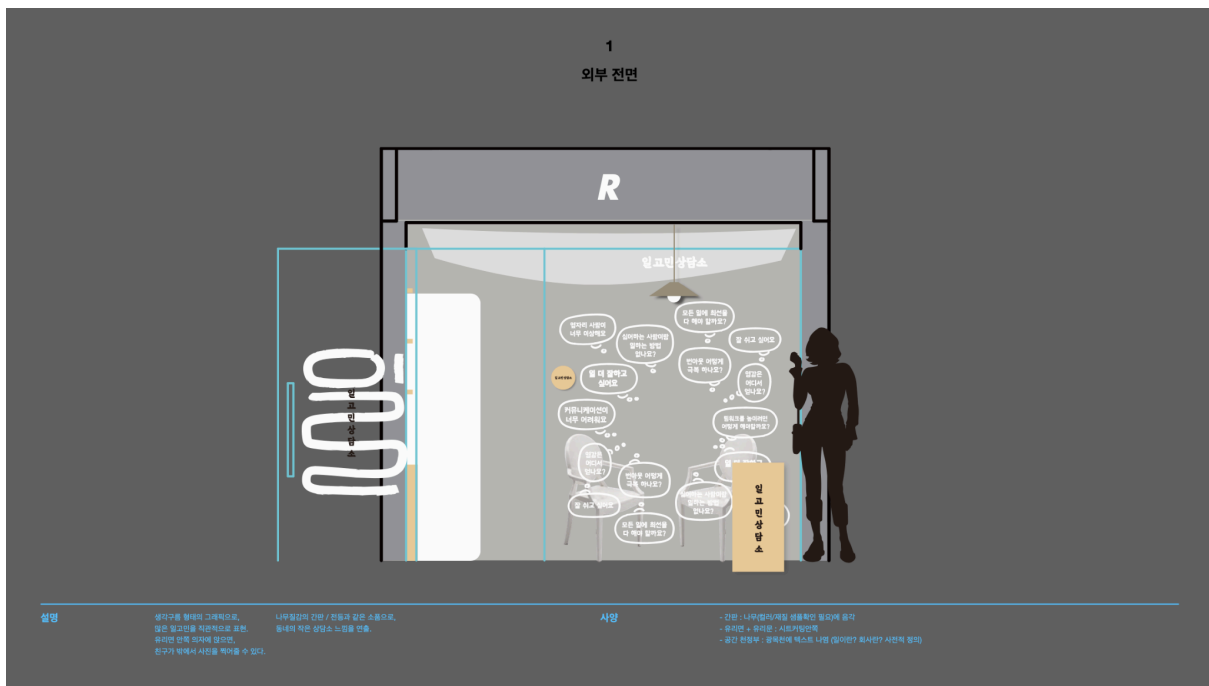
: 작은 공간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보여주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다...욕심 버려!

<오늘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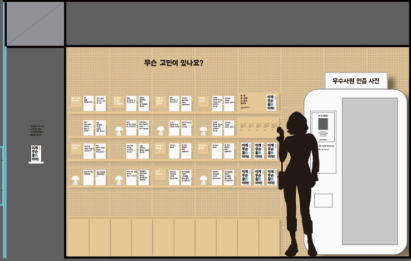
: 이 책과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분들, 함께 일해준 파트너분들 리스트업을 꼭 해보니 너무 감사하잖아?! 이 마음을 꼭 전하자!

2022년 6월 2일 전시 기획 디자인 피드백 & 디벨롭 회의

많이 왔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 하하;;



1
내부 삼면



좌측면

책단면 :
이계우순영이이책에
다가 다른 질문이 포함된 카드를 키워 진시,
책단 질문에 대한 답안이 되는 내용을 인적성,
(리뷰보드 > 선반 > 책무장 > 선반 뒤 직권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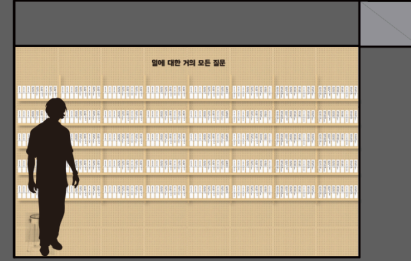
우우사편 전용서민 :
포스트박스 안에서
책이 스티커 사진을 찍는 책대.



중앙 전면

원장부 책단면 :
공책안에 일 / 회사
사진이 영의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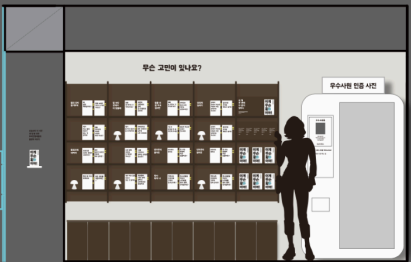
전면 벽 질문 :
원도책단으로 일대대한 질문을 풀릴
이 권안에 정당한 사람들이
각자 일대 대한 생각을 배울 수 있는
질문 하나 건넬 수 있도록.



우측면

질문책단면 :
일대 대한 고민이 많으며,
그대 대한 원도책단 질문이 일대대한
책단 하나 책대, 질문대 대한 공감과 위로의 경험을
가져가게 함.

2
내부 삼면



좌측면

책단면 :
이계우순영이이책에
다가 다른 질문이 포함된 카드를 키워 진시,
책단 질문에 대한 답안이 되는 내용을 인적성,
(리뷰보드 > 선반 > 책무장 > 선반 뒤 직권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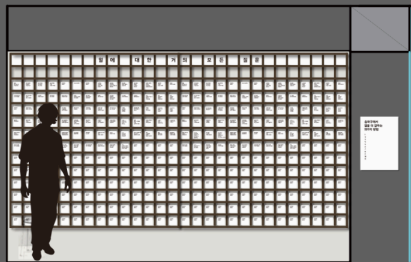
우우사편 전용서민 :
포스트박스 안에서
책이 스티커 사진을 찍는 책대.



중앙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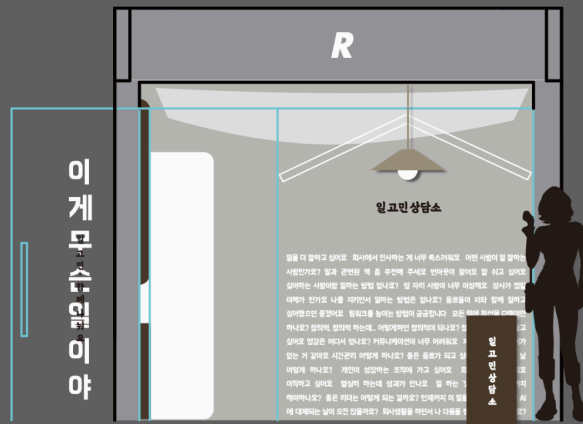
원장부 책단면 :
공책안에 일 / 회사
사진이 영의 노출.

전면 벽 질문 :
원도책단으로 일대대한 질문을 풀릴
이 권안에 정당한 사람들이
각자 일대 대한 생각을 배울 수 있는
질문 하나 건넬 수 있도록.



우측면

고민 책지 :
일대 대한 고민이 많으며,
그대 대한 원도책단 질문이 일대대한
책단 하나 책대, 질문대 대한 공감과 위로의 경험을
가져가게 함. (흔 더 거대하게 가져가 볼 수 있는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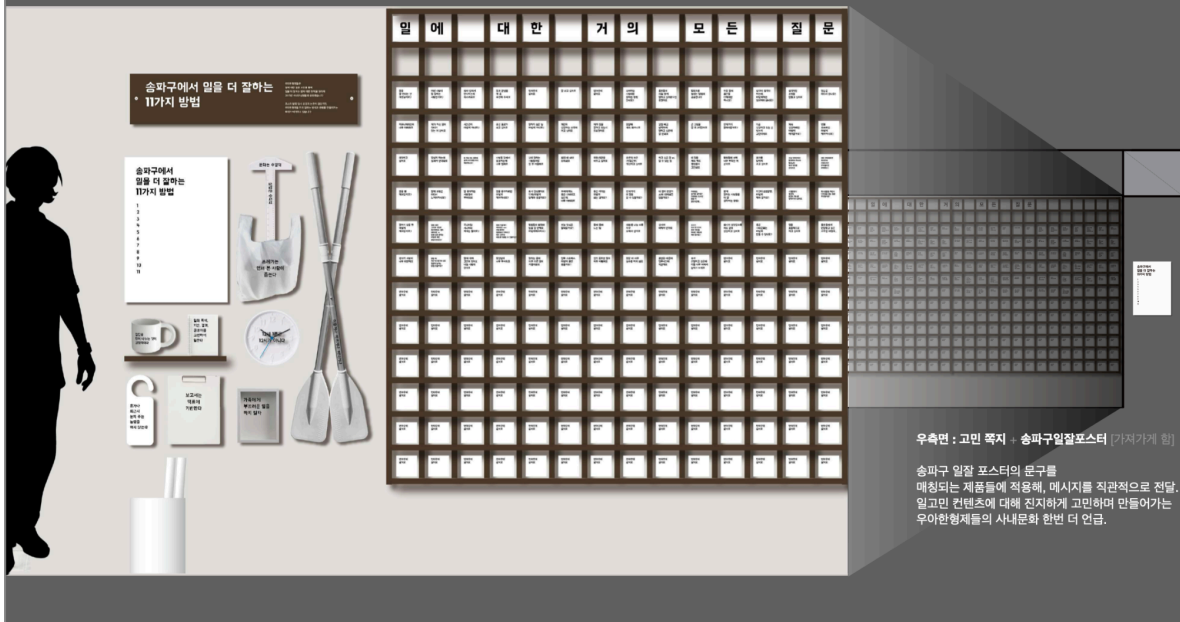
설명

잘 공간을 텍스트로 나타낼
차별적이고 상징적인 느낌을 연출

나부정당의 단면 / 단면과 같은 소품으로,
물리적 혹은 상징적 느낌을 연출
(단면과 무드 불리를 달리 함)

사양

간판 : 나무(단면)재질, 선형화된 형태로 용다
- 유리문 : 유리문, 시트카탈로그
- 공간 연출부 : 공적선에 텍스트 나열 (공간면? 최선안? 사적인적 형식)



우측면 : 고민 쪽지 - 송파구일잘로스터 [가져가게 함]

송파구 일잘 포스터의 문구를
매칭되는 제품들에 적용해,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
일고민 건립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우아한형제들의 사내문화 한번 더 언급.

피드백

- 작은 공간에 너무 보여주려는 것이 많다
- 새로운 경험이 없다: 뻘해서 들어오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이미 뭘 할지 알 거 같다.
- 책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
- 생각보다 재미있고 쉽게
- 공간 자체가 흥미로우면 성공!

디벨롭 아이디어

- 엽서나 책갈피 아니라 사물함? 사물함 걸면에는 질문, 문을 열면 답변들 (열어보고 싶게)
- 인생네컷?
- 고해성사?
- 타로카드? 철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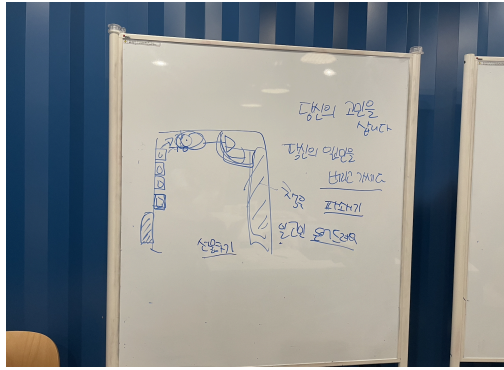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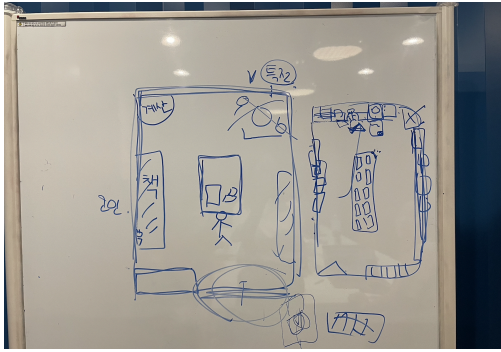
다시 처음으로....다시 아이디어션...이게...무슨...일이야...
오늘의 저녁 메뉴는 떡볶이^^



하하. 집에 가고 싶다...

아이디어들

- 고민 보여주는 게 너무 뻑뻑하면 패드를 세대 정도만 두고 서점 도서검색처럼 영수증 나오게?
- 차라리 3면을 꼭 채우는 건 어때 - 민트컬러로
- 결국에 깔끔하게 보여주는 방법만 달라지면 되지 않을까 여기로
- 당신의 고민을 삼니다.
- 당신의 고민을 버리고 가세요.
- 당신의 고민을 우주로 날려드립니다.
- 당신의 고민을 갈아드립니다



2022년 6월 3일 디벨롭 회의 이어서...

당신의 고민을 찢었다 (해방감) 갈아드립니다
 한명씩 받아. 줄을 세워보자 - 한명이 고민을 쓰고 파쇄해.
 파쇄한 종이들이 짝 공간에 시각화해서 넣어주고 보여줘



타로카드

일을 점쳐본다? 직장운, 직업운, 연봉운, 동료운
 실제 타로점을 봐주고(타로전문가에게 책을 먼저 읽어봐달라고
 타로 내용에 잘 녹여서 썰을 풀어달라고 하자

이게무슨이야야 일러스트 타입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22장+56장 78장
(타로카드의 법칙, 타로의세계 탐색이 필요)

마무리로 > 이게무슨이야야 책 45p로 가시오

// 운영이 너무 상상이 안간다

이게무슨이야야

와글와글하게 흑백의 이야기가 꼭 차있는 낙서에너지가 느껴지게 한다.

- 프로젝트렌트 : 브랜드 비하인드를 접할수 있는 공간으로 대중이 인식
입장하면 카운을 입혀주고 펜을 쥐어주고 낙서를 도배하는 것에 참여도 해본다.

우형의 일문화. 엉뚱한 일을 하는것 같지만 별것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의미있게 만드는 일
송파구에서 일잘하는 방법 + 일문화 문구들 와글와글 털어놓는 공간
짜간한 일 낙서 + 진지한 연구원 흰가운 대비되는 비주얼

/

책을 보여주는 것과 가장 동떨어져 보이고
쓴다고 뭔가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당신의 고민을 삽니다! (창구형- 상호작용)

진짜 사자. 쓰고 - 넣고 - 받고

고민에 대한 권한을 삽니다 - 싸인= 꼭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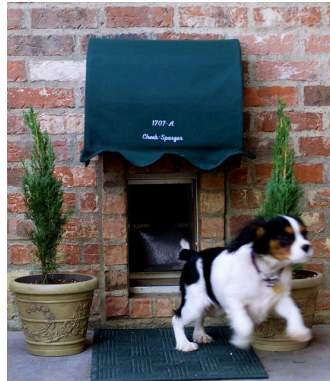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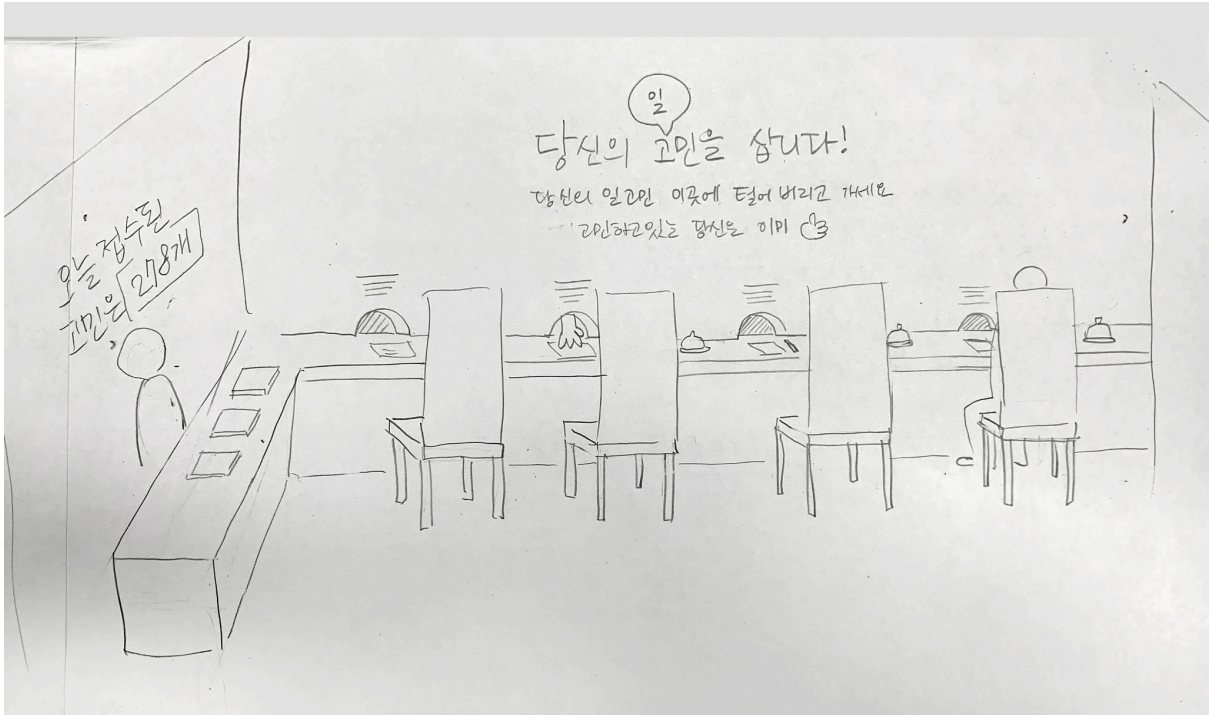
이 고민들을 모아서 리포트를 만들꺼다. 사람들이 많이하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가장 인기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고민을 적어서 창구로 밀어넣으면 해법문구+배민선물하기 상품권을 스윙 내민다.

이게무슨일이야 책 45p로 가시오(마무리)

고민을 삽니다. 처방을 팔아요.(책) - 대응되는 문구를 넣어주자



일고민상담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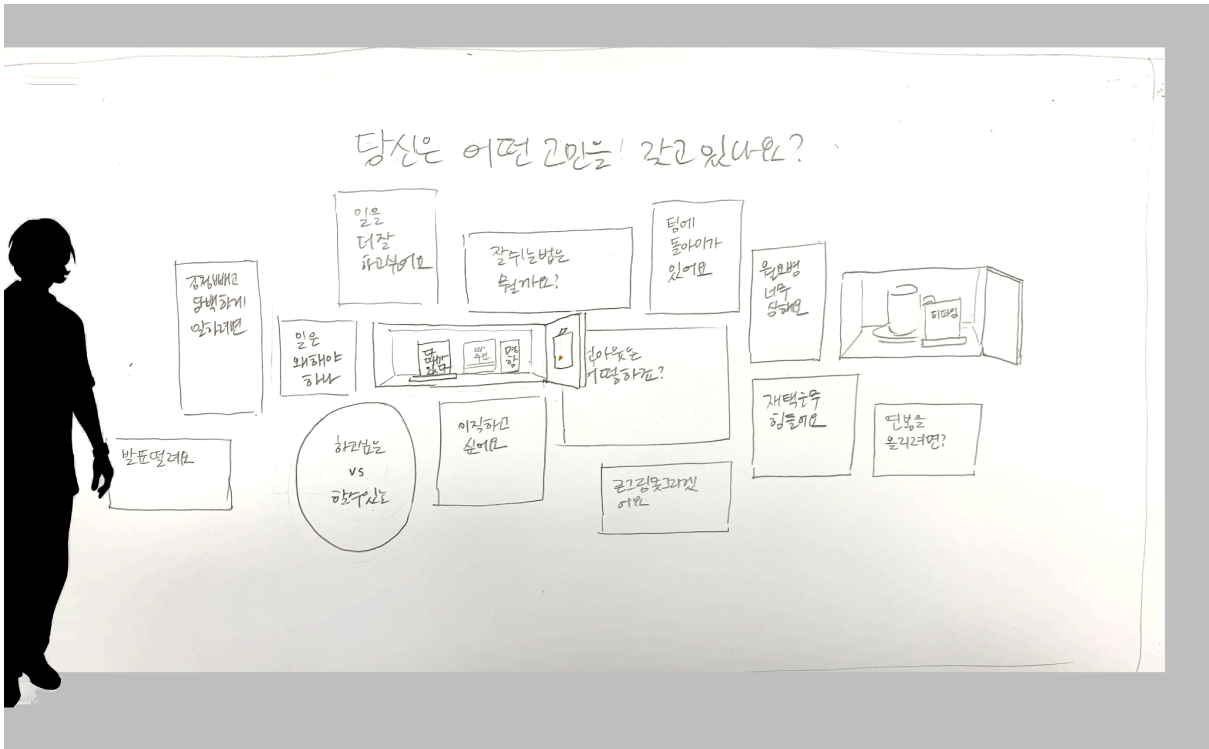
당신은 어떤 고민이 있나요?

고민의벽 : 질문을 보고 열어서 답변을 보고

안에 질문에 맞는 조언글과 어울리는 물품을 같이 뇌준다.

ex 이직하고싶어요! > 다때가있다 / 우형 명함 - 채용담당자 명함 뒷장에 채용사이트로 연결되는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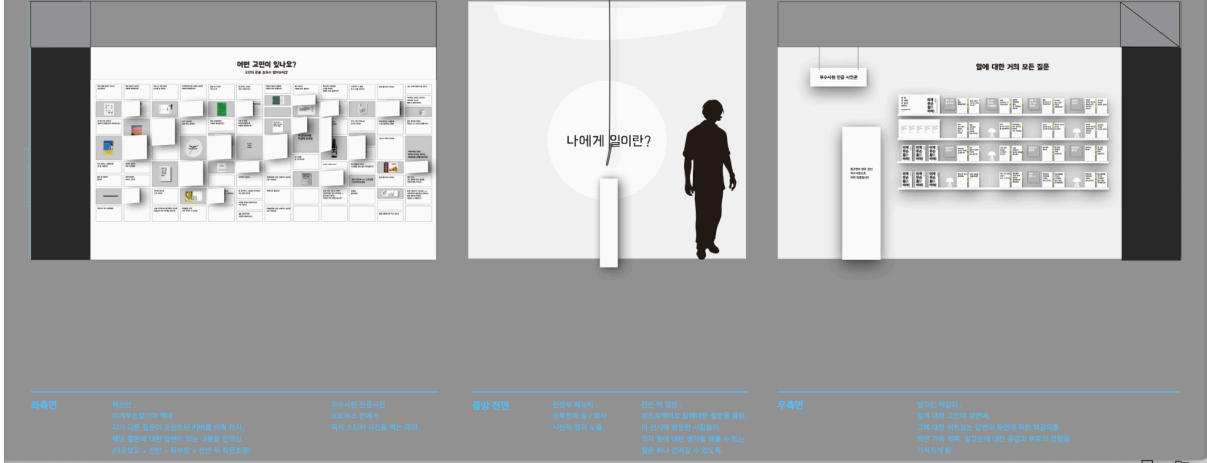
ex 번아웃이 왔어요! > 텅 / 자리비움 / 휴가엔 사유가 없습니다 + 여권



여러명이 보고계시네요~ :) 이게 무슨 일이야! 책 출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디서들 알고 오신거죠? ㅎㅎ





1. 자판기: 일고민을 삼니다 (일고민을 화폐로 고민을 팔고, 공감을 얻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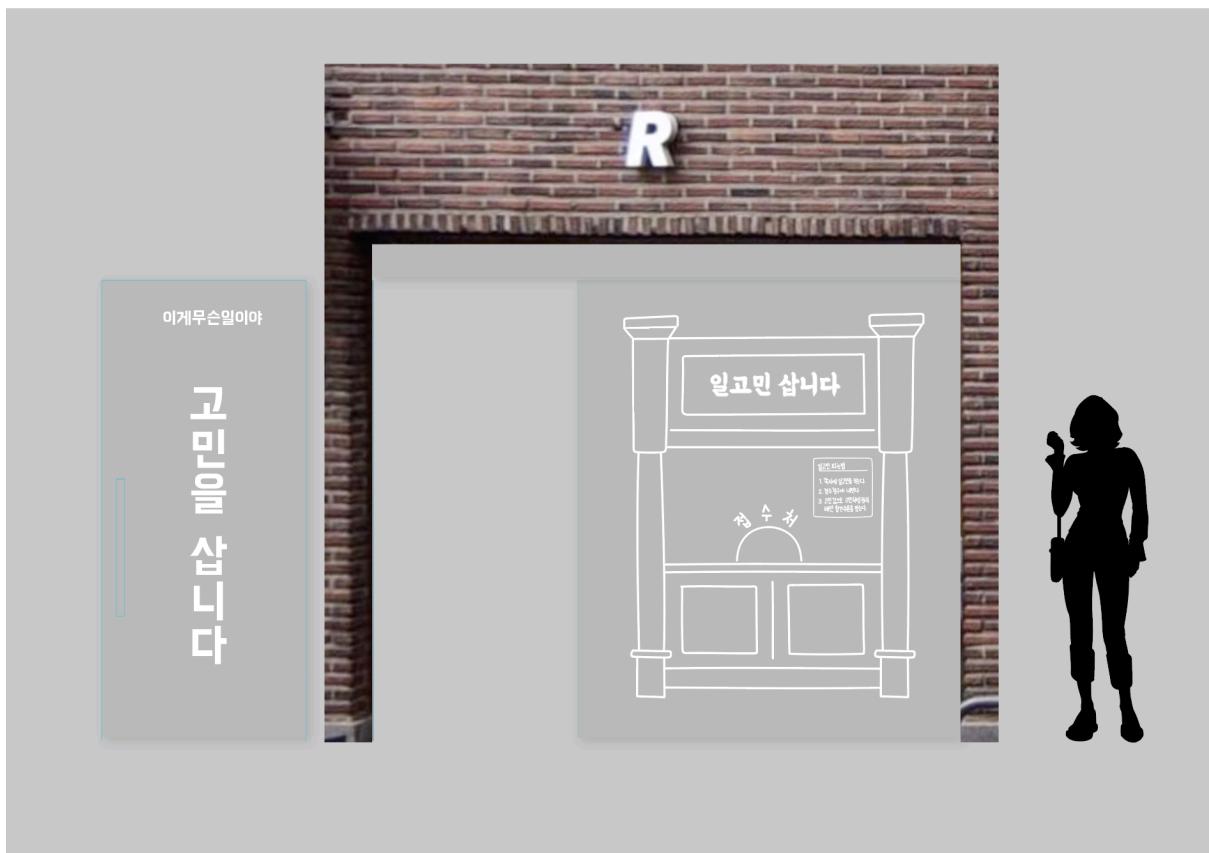
- 왼쪽에 입장하면 고민을 쓰는 영역 2~3개
- 전면에 자판기: 2대 (설명 등이 있다)
- 선택지: 공감 / 위로 / 당근 / 채찍질 / 해결 / 방법 / 랜덤
- 리워드: 고민상황과 선택지에 맞는 책에 있는 내용(필수, 페이지와 내용을 엽서형식으로?), 쿠폰(필수), 배민문방구 소품, 쿠폰 등을 랜덤리 / **ex)취업고민_다때가있다 / 스트레스_초콜릿 / 박카스 / 옷차 / 드립백 / 문방구 지원 가능한 제품 확인**
- 오른쪽 책 전시

자판기		
일 고 민 쓰 기		이 게 무 슨 일 이 야! 의 방 법

2. 접수처 안쪽에 있는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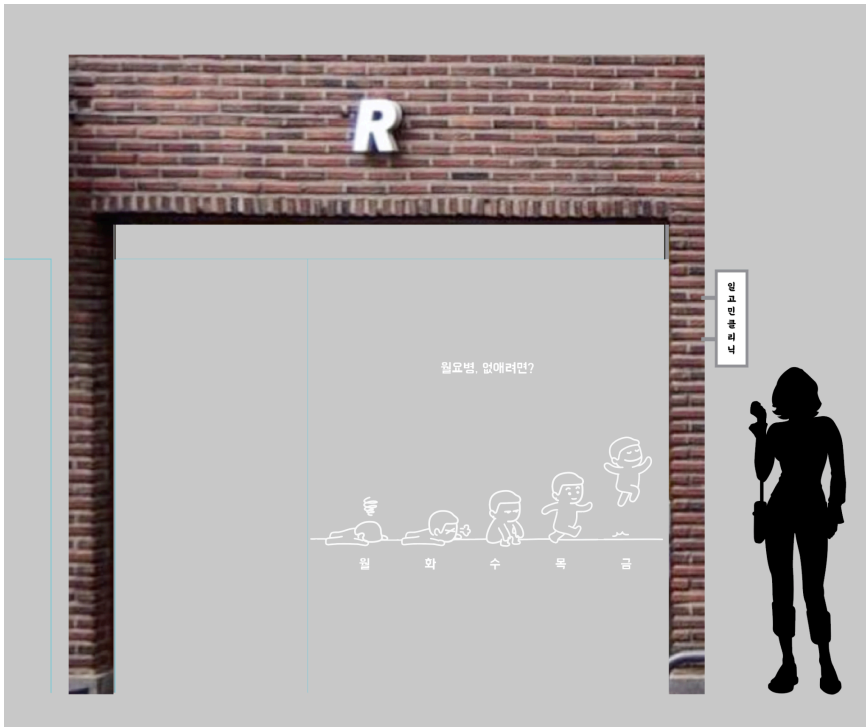
- 왼쪽: 캐비닛: 우아한형제들 구성원의 일고민과 해결방법
- 전면부: 일고민 파는 법 설명 (가벼운 접수처, 쿠폰 같은 그래픽)
- 오른쪽: 입구를 기준으로 우상단에 고민 사는 부스

←----- 줄 서는 방향----- (부스)		
캐비닛		이게 무슨 일이야!의 방법



3. APPENDIX
고민전당포





2022년 6월 7일 디자인 피드백 회의

<목업>





- 밖에서 구경은 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천장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 안에 스태프가 있을 때,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올 거 같아.
- 차라리 운영스태프가 안으로 들어오는 홍보요원이면 어때
- 더울 때니까 부채어때? - 일 고민과 답변이 적혀진 부채 : 성수동에 그게 매체로 뿌려지게
- 부채 나눠주는 그 사람과 사진 찍고 싶으면 어때?
- 자판기가 타이틀 다시 고민하기
- 자판기에서 나오는 해결책 상세 기획하기

<피드백 이어 실무자 회의>

- 공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 일고민을 삼니다가 공간에 대한 설명을 직관적으로 해주나? 누가 왜 하는지를 좀 알려줘야 할 것 같다.

정리 할 것 (마케터 to 디자이너)

- 전면 타이틀 / 카피
- 왼쪽문 카피
- 고민 적는 장소 상단에 안내 / 고민 쪽지 폼
- 자판기 타이틀 / 카피
- 리워드 쿠폰카피 (고민과 답변이 같이 있는)
- 책있는 공간 타이틀 질문 / 인덱스로 들어갈 답변
- 부채 카피

2022년 6월 8일 카피 정리

- 카피 정리하면서 컨셉이랑 전시 동선이 좀 정리 됐다. (휴우 다행)
- [카피 정리 바로가기 >>](#) (요거는 담당자만 볼 수 있음)



고민이 사라지는 중



(양쪽 옆면도 '일' 크게 꾸며주세요)



자판기 레퍼런스는 우리 안에 있어!

- 우리가 일할 때 영감을 주었던 분들에게 편지 쓰는 중!

2022년 6월 9일 책 실물 보고 가세요~



2022년 6월 10일 부채 대전 to 부채 청산

홍보용으로 나누어주려고 부채 아이디어가 나왔고 디자인 기획 디벨롭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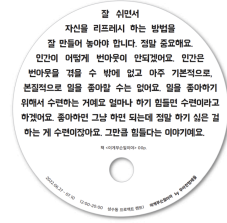
앞



뒤



앞



뒤



슬랙 대화를 거의 그대로 옮깁니다.

KJ/기업브랜딩팀 28분 전

OO님 의견은 '인생네컷' 찍을 때 들고 찍을 수 있는 듯한 느낌? (들고 다니기 재밌는 부채)

HK/기업브랜딩팀 21분 전

다 때가 있다는 따로 또 있으니까 뽀시다

HJ/기업브랜딩팀 20분 전

지켜보고있다

YN/기업브랜딩팀 20분 전
쉽고 명확하고 위트있게

HJ/기업브랜딩팀 20분 전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YN/기업브랜딩팀 19분 전
흠. 근데. 인생네컷과 같이 찍는다라.

KJ/기업브랜딩팀 19분 전
정말 같이 찍는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약간 들고 다닐수 있는? 느낌 ㅎㅎ

YN/기업브랜딩팀 18분 전
음. 저는 사실 우리 안에서 이게 워낙 클래식이 되었으니 뭔가 더 새로운거 없나? 지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YN/기업브랜딩팀 17분 전
그래서 부채를 꼭 해야하나? 라는 생각에 잠시 이르렀다가

KJ/기업브랜딩팀 17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J/기업브랜딩팀 17분 전
다시 막 리셋

YN/기업브랜딩팀 17분 전
발 한쪽은 아직 그 산에 있고

HJ/기업브랜딩팀 17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어제부터 그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HK/기업브랜딩팀 16분 전
진정 마음의 부채인가

HJ/기업브랜딩팀 16분 전
부채가 미션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면 부채는 청산하는 것이

YN/기업브랜딩팀 16분 전
발 한쪽은 한다면 이정도에서 타협을 할수는 있지. 인데

HJ/기업브랜딩팀 16분 전
근데! 아무것도 없다! 보다는 있는게 좋잖아여

HJ/기업브랜딩팀 16분 전
그리고 그냥 있어서 좋은 것 보다는 현재 상태는 조금 더 좋은 거 같아요

HJ/기업브랜딩팀 15분 전
마이너스 - 0 - 10 중에서 3은 된다

YN/기업브랜딩팀 14분 전
아무래도 부채는 너무 전통적인 판촉물이라서. 한다면 정말 참신해야하지 않나 vs.
이정도로도 없는거 보다는 낫다 (저관여자들에게 막 뿌릴 용도로 엽서나 스티커보다는
부채가 낫지 아니한가)

HJ/기업브랜딩팀 13분 전
풍선주까요?

HJ/기업브랜딩팀 13분 전
풍선 되게 좋아하던데 다들

KJ/기업브랜딩팀 13분 전
저는 저 부채형태가 전단지 쓰레기 같아서

HK/기업브랜딩팀 13분 전
달고나

YN/기업브랜딩팀 13분 전
우산 줄까

KJ/기업브랜딩팀 13분 전
물티슈 ㅋㅋㅋ

HK/기업브랜딩팀 13분 전
송사탕

KJ/기업브랜딩팀 13분 전
아이스크림

KJ/기업브랜딩팀 13분 전
물 = 무리수

YN/기업브랜딩팀 13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J/기업브랜딩팀 13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K/기업브랜딩팀 12분 전
물티슈 받으면 따라서 어디 들어가야 함

HJ/기업브랜딩팀 12분 전
행주

KJ/기업브랜딩팀 12분 전

모델하우스

YN/기업브랜딩팀 12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부채가 아니긴 아닌거 같다. 이정도 말하다보니.

HK/기업브랜딩팀 12분 전

설명듣고 와야함

KJ/기업브랜딩팀 12분 전

사인해야함

KJ/기업브랜딩팀 12분 전

부채하지말까 부채 저거 나 안받을거같기도함 심지어 종이부채야

KJ/기업브랜딩팀 12분 전

바로 가방에 넣을거 같음

YN/기업브랜딩팀 12분 전

한손엔 메쉬커피가 있을테니

KJ/기업브랜딩팀 12분 전

아니면 종이안경

HJ/기업브랜딩팀 12분 전

받고 싶은 예쁜 부채 만들기가 미션이었는데, 안 버리고 여름내 쓰게하기가

KJ/기업브랜딩팀 12분 전

왕관

HJ/기업브랜딩팀 11분 전

드립백

YN/기업브랜딩팀 11분 전

메쉬랑 꼴라보

YN/기업브랜딩팀 11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N/기업브랜딩팀 11분 전

오 메쉬랑 꼴라보 어때요

HJ/기업브랜딩팀 11분 전

커보니

피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오늘도 커피

KJ/기업브랜딩팀 11분 전

종이컵 콜라보????????????

YN/기업브랜딩팀 11분 전
블랜딩해서 드립백 해달라고

HJ/기업브랜딩팀 11분 전
이게무슨일이야 드립백

HK/기업브랜딩팀 11분 전
우수사원 어깨띠

HJ/기업브랜딩팀 11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

YN/기업브랜딩팀 11분 전
웃차에 이어 메쉬커피

KJ/기업브랜딩팀 11분 전
넌나의든든한 (드립)백

YN/기업브랜딩팀 11분 전
근데 그게 티가 안나지

YN/기업브랜딩팀 10분 전
어깨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J/기업브랜딩팀 10분 전
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프로젝트 리포트에 넣을 거에여

YN/기업브랜딩팀 10분 전
근데 커피한잔씩 주기 좋은걸?

YN/기업브랜딩팀 10분 전
우리가 좋아하는거 자랑하는거 좋아하니까

KJ/기업브랜딩팀 10분 전
막 선거철에 했으면 헛갈리게

YN/기업브랜딩팀 10분 전
메쉬한잔 마시면 여러분 일 고민 사라집니다

YN/기업브랜딩팀 10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

HK/기업브랜딩팀 10분 전
근데 이거 성수동 근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주는 거 맞죠?

YN/기업브랜딩팀 10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네..

HK/기업브랜딩팀 10분 전
그래도 매쉬드립백 정도면 온사람 주자....

KJ/기업브랜딩팀 10분 전
근데 초반에는 우리 매장앞에서 나눠주는거임

YN/기업브랜딩팀 9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사람

KJ/기업브랜딩팀 9분 전
자 의사결정 해여합니다

KJ/기업브랜딩팀 9분 전
부채 살랴죽여

YN/기업브랜딩팀 9분 전
부채 안갔어요?

YN/기업브랜딩팀 9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KJ/기업브랜딩팀 9분 전
ㅋㅋㅋㅋ rip

YN/기업브랜딩팀 9분 전
흠. 그래 다시한번 냉정하게.

YN/기업브랜딩팀 9분 전
한번 각 봐주시저

HJ/기업브랜딩팀 9분 전
자! 앞에서 판촉하는 행위 필요하다 아니다 투표 1.하다 2.아니다

YN/기업브랜딩팀 9분 전
아. 더 상위고민으로 갔구나

YN/기업브랜딩팀 9분 전
하긴 그거부터가 문제임

YN/기업브랜딩팀 9분 전
장마철에

YN/기업브랜딩팀 8분 전
알리는거 온라인으로 더 힘씁니다. 요즘은 다 찾아오더라고요. 2번

HK/기업브랜딩팀 8분 전
2

HJ/기업브랜딩팀 7분 전
우리 전시장에 왔을 때 주는 거 두개나 있으니까

HJ/기업브랜딩팀 7분 전
부채 킬합니다

HJ/기업브랜딩팀 7분 전
부채청산

HJ/기업브랜딩팀 6분 전
그리고 이 공력을 차라리 메쉬커피 콜라보 (깜짝 쿠폰??) 같은걸로?

YN/기업브랜딩팀 6분 전
오메메메메

YN/기업브랜딩팀 5분 전
갖고시퍼!!!!!!!!!!!!!!!!!!!!

HJ/기업브랜딩팀 5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고민 팔아야 주지롱

YN/기업브랜딩팀 5분 전
와 확 땡긴다

HJ/기업브랜딩팀 5분 전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부채 킬버니다

HK/기업브랜딩팀 5분 전
부채킬러

HJ/기업브랜딩팀 5분 전
너무 오늘까지 결정해야하고.... 급하게 가다가 사고날거 같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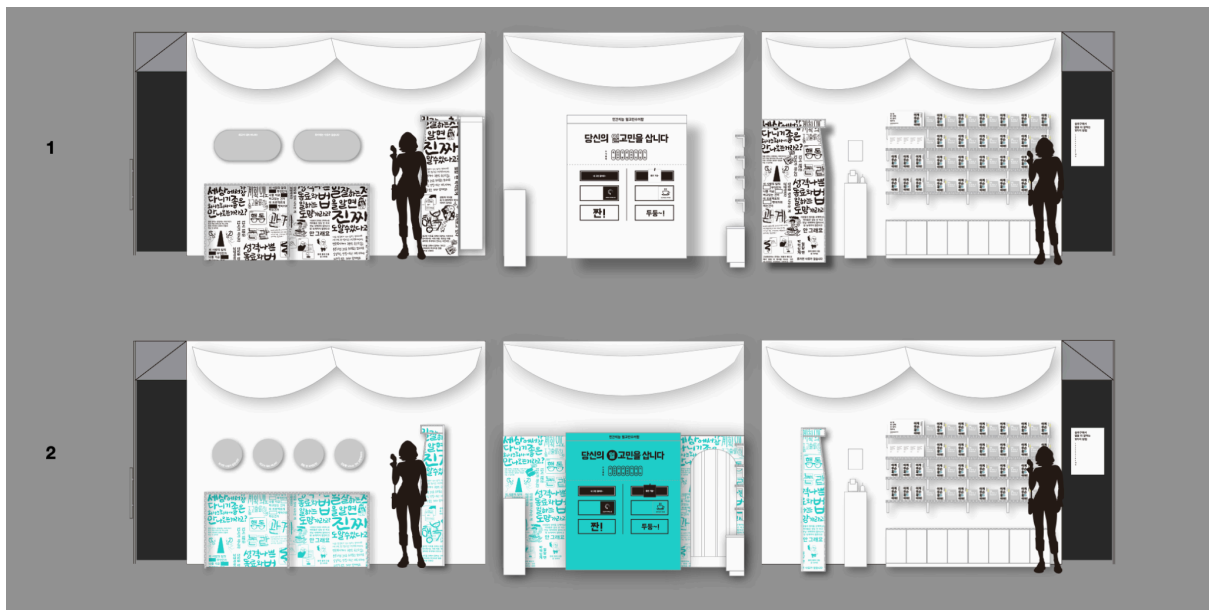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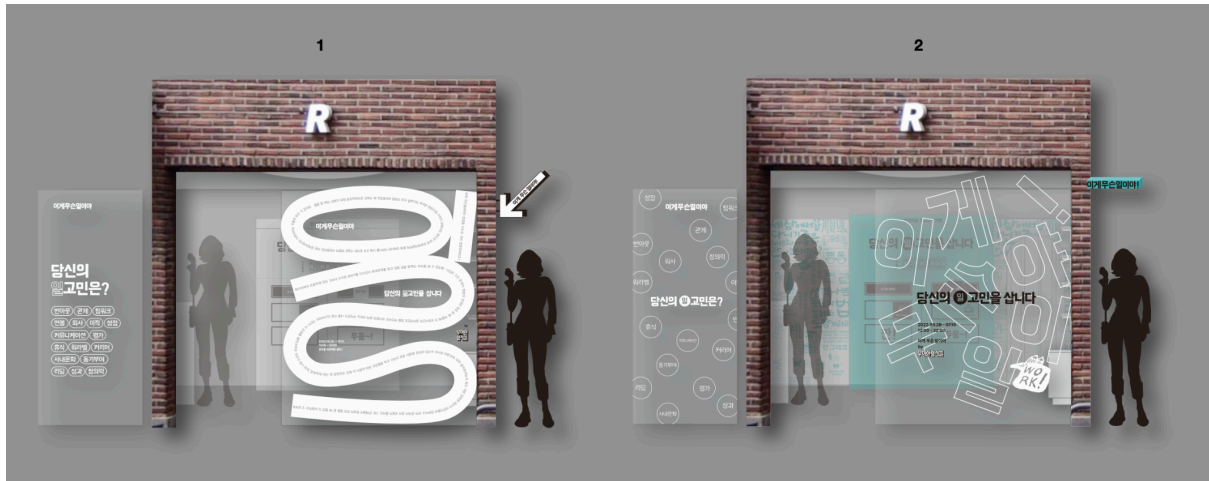
YN/기업브랜딩팀 4분 전
맞어 ㄸㄸ 찬찬히 숨고르고~

HJ/기업브랜딩팀 4분 전
습습후후

HK/기업브랜딩팀 4분 전
맞아요 나올 거였으면 벌써 나왔지...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팬데믹은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좋아요.” - 책 이게 무슨 일이야 중 -

2022년 6월 10일 디자인 3차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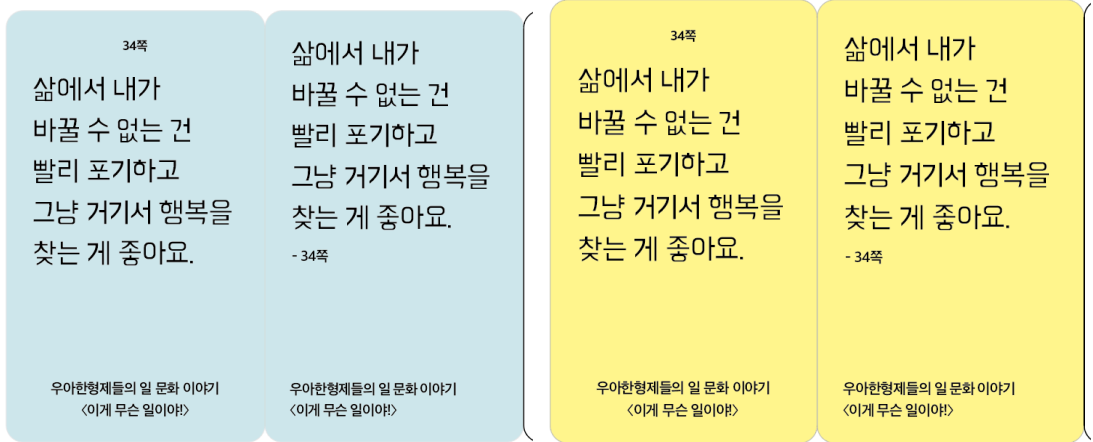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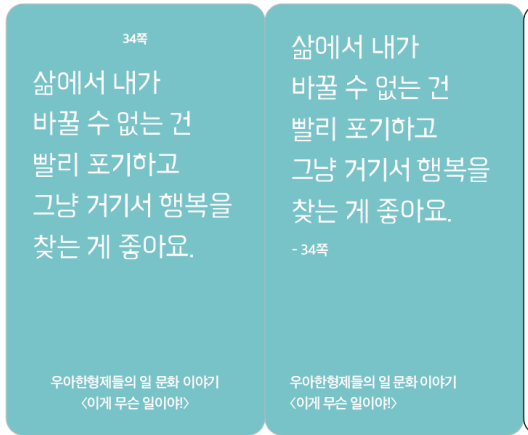


2022년 6월 14일 세부 디자인 작업중

1. 외관/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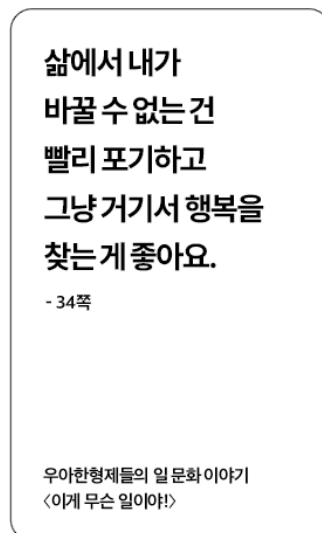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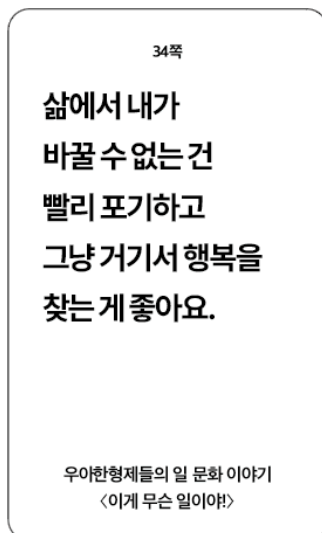


2. 책갈피 컬러테스트



폰트 테스트

고딕



명조

34쪽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좋아요.

우아한형제들의 일 문화 이야기
〈이게 무슨 일이야!〉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좋아요.

- 34쪽

우아한형제들의 일 문화 이야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한나체

34쪽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좋아요.

우아한형제들의 일 문화 이야기
〈이게 무슨 일이야!〉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좋아요.

- 34쪽

우아한형제들의 일 문화 이야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한나체 Air

34쪽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좋아요.

우아한형제들의 일 문화 이야기
〈이게 무슨 일이야!〉

삶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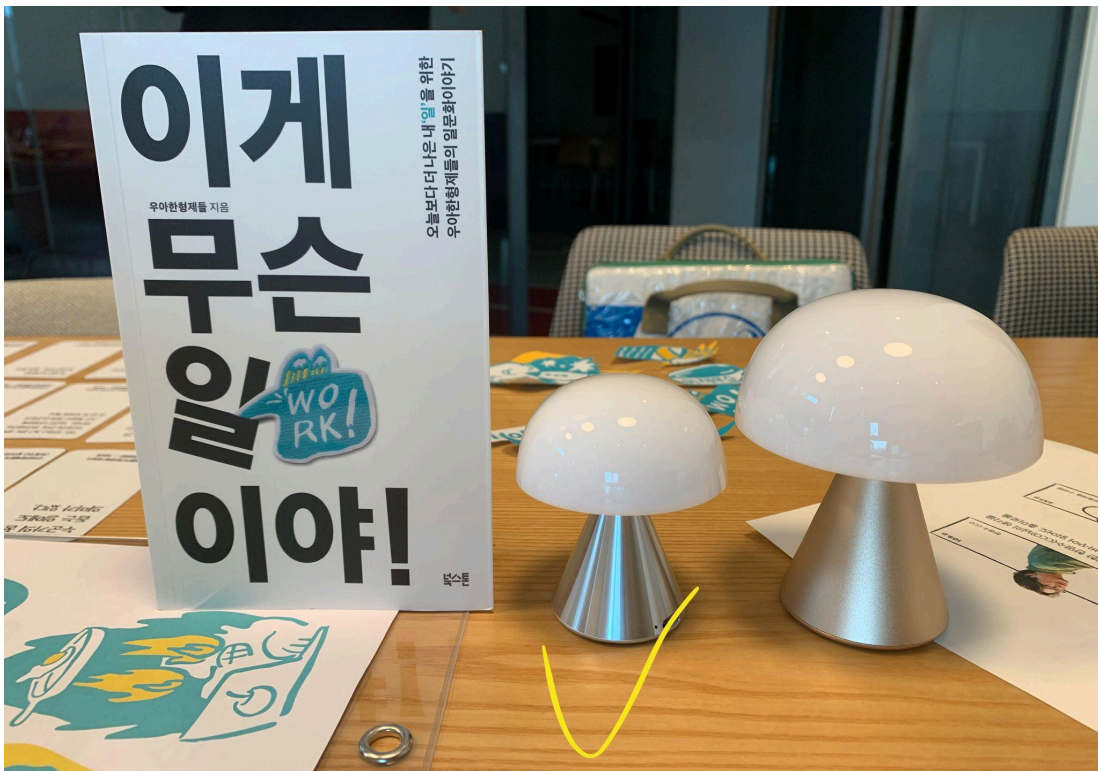
-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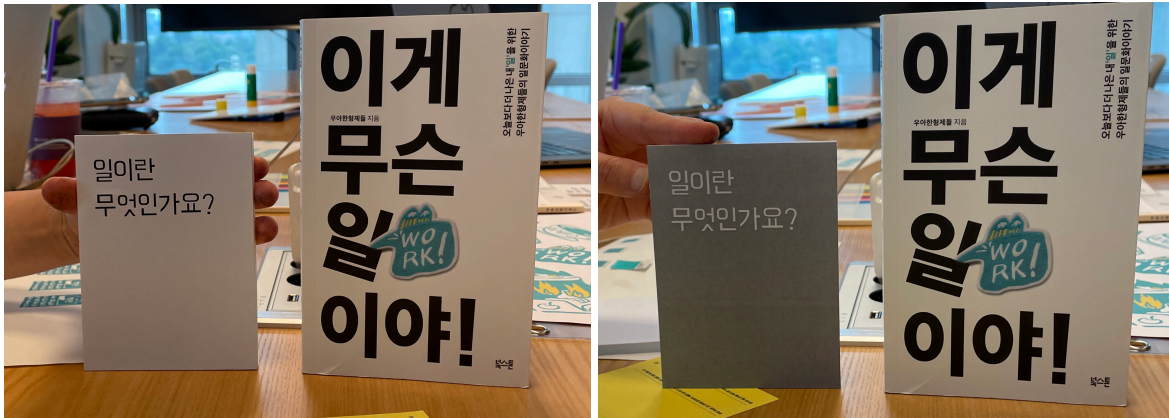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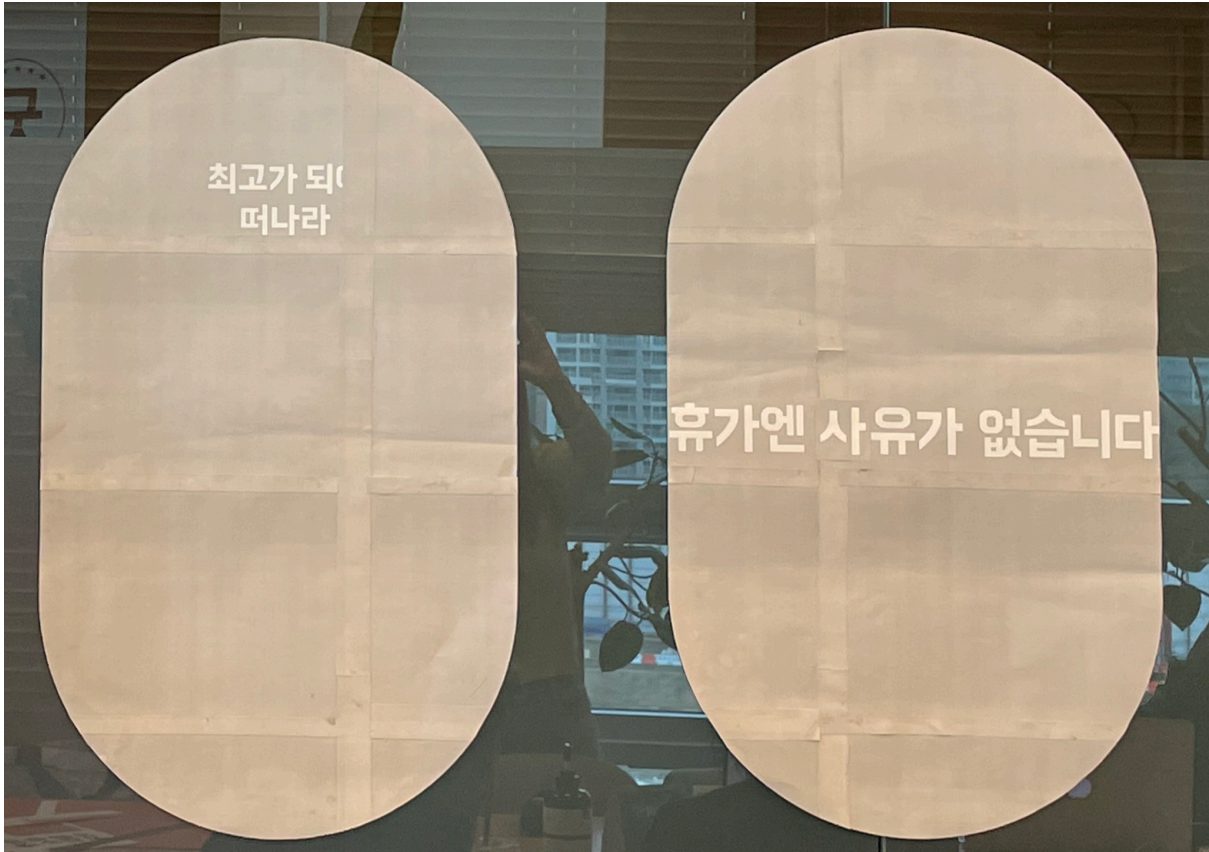
우아한형제들의 일 문화 이야기
〈이게 무슨 일이야!〉

3. 고민 접수지

4. 책 전시존

2022년 6월 16일 디자인 출력 전 최종 체크





2022년 6월 17일 오늘의 고민은 고민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 일고민을 사서, 배민다움today에 보여주면 좋겠다
- 일고민은 어쨌든 방문하신 분들의 저작물이니 법률 검토를 받자
- 법률 검토 결과! 두둥... 문구가 너무 무겁다... 문구 수정할 수 없을까? 아니라면, 이걸 쪽지에 넣느니 차라리 고민을 사용하지 말까?
-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고민을 하는지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 결론... 제대로 된 고지를 하고, 동의 받은 것만 잘 사용하자!

당신의 **일** 고민은 무엇인가요?

번아웃 관계 커리어 연봉 퇴사 이직 성장 기타

동료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자꾸 의식하게 되요~

위에 작성된 고민 판매에 동의하며, 제출과 동시에 더 이상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2. (인)

접수한 (일)고민을 배민다음 today에 공유 할게요.

동의 비동의

당신의 **일** 고민은 무엇인가요?

번아웃 관계 커리어 연봉 퇴사 이직 성장 기타

동료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자꾸 의식하게 되요~

위에 작성된 고민 판매에 동의하며, 제출과 동시에 더 이상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본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우아한형제들이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복제/전송/전시/배포 등의 방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좌:전 / 우:후

2022년 6월 23일 전시 크레딧

- 이 프로젝트 리포트의 시작이었던 전시 크레딧 아이디어.
- 영화 맨 뒤에 나오는 크레딧처럼 이 일을 했던 사람들과 일과 감상을 남기자!
- 이제 전시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쓰는 크레딧

1차 기획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총 00버전의
시안을 만들었음

일한 사람: 이화랑(타이니웍스)
업무 강도: ★★★

얼마 남지 않은 휴가에
안타까워하며 이 거울을 만들었음

일한 사람: 김유나(우아한형제들)
업무 강도: ★

고민을 정리하다가
내 고민이 사라졌음

일한 사람: 손혜진(우아한형제들)
업무 강도: ★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

일한 사람: 이은규(북스톤 출판사)
업무 강도: ★★★★★

스스로 최고가 되길 바라며
이 거울을 만들었음

일한 사람: 최경진(우아한형제들)
업무 강도: ★

2차 기획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작업설명: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총 00버전의 시안을 만들었음

작업자: 이화량(타이니웍스)

업무 난이도 ★★☆☆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총 00버전의 시안을 만들었음

작업자: 이화량(타이니웍스)

업무 난이도 ★★☆☆

기획을 바탕으로 나온 디자인 시안

한나체 Air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총 11번의 시안을 만들었음.

작업자 이화량 [타이니웍스] | 업무난이도 ★★☆☆

76x55mm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총 11번의 시안을 만들었음.

작업자 | 이화량 [타이니웍스]
업무난이도 | ★★☆☆

70x70mm

고딕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총 11번의 시안을 만들었음.

작업자 이화량 [타이니웍스] | 업무난이도 ★★☆☆

76x55mm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총 11번의 시안을 만들었음.

작업자 | 이화량 [타이니웍스]
업무난이도 | ★★☆☆

70x70mm

이걸로 선택!

고딕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이 시안이 나오기까지
총 11번의 시안을 만들었음.

작업자 이화랑 [타이니웍스] | 업무난이도 ★★★

76x55mm

크레딧 쓰기 아이디어션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이 시안의 핵심포인트는 000임

작업자: 이화랑(타이니웍스)
업무 강도 ★★★

작업명: 나 다시 돌아갈래

얼마 남지 않은 휴가에
안타까워하며 이 거울을 만들었음

작업자: 김유나(우아한형제들)
난물지수 ★

작업명: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못다한 Q&A를 담기 위해
연사님들과 10시간 넘는 인터뷰를 진행함

작업자: 이은규 (복스톤)
업무 강도 ★★★★★

작업명: 고민보다 GO

고민을 정리하다가 진짜 고민이 사라졌
음

작업자: 손혜진(우아한형제들)
업무 스트레스 ★

작업명: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최고니?

스스로 최고가 되길 바라며
이 거울을 만들었음

작업자: 최경진(우아한형제들)
만족도 ★★★★★

작업명: 후가공은 예ക്ഷ

표지 속 와펜이 실제처럼 느껴지도록
후가공에 힘 썼음

작업자: 박예인(우아한형제들)
반생지수 ★★★

작업명: 수거함이나 자판기나 그것이 문제로다

마지막까지 소재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했음

작업자: 이화랑(타이니웍스), 이상은(우아한형
제들), 한규희(RPM)
업무 강도 ★★★★★

작업자가 직접 쓰는 게 더 좋을 거 같아! 최종!

부작: 고민점수대 근처

작업명: 숨은 그림 찾기

'물레 물레 다들 잘 쉬어요' 라는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음
빨리 작업하고 쉬고 싶었음

작업자: 이화랑(타이니웍스)
업무 강도 ★★★

부작: 휴가에는 사유~ 거울 근처

작업명: 떠나요 제주도

이 작업을 마치고 육아휴직을 떠났음

작업자: 성호경(우아한형제들)
행복지수 ★★★★★

부작: 책 근처

작업명: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못다한 Q&A를 담기 위해
연사님들과 10시간 넘는 인터뷰를 진행함

작업자: 이은규 (복스톤)
업무 강도 ★★★★★

부작: 책 고민 인덱스 근처

작업명: 일에 대한 100가지 질문

100가지 질문을 모으고자 했으나 지면이
부족하여 20여개로 정리함 (휴 다행이다)

작업자: 손혜진(우아한형제들)
다행지수 ★★★★★

부작: 최고가 되어~ 거울 근처

작업명: I LOVE ME

거울셀카를 찍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작업자: 최경진(우아한형제들)
만족도 ★★★★★

부작: 책 근처

작업명: 진짜최종최종.jpg

표지 시안 50개 중 최종 선택함
WORK 와펜이 실제처럼 느껴지도록 후가공에
특별히 신경 씀

작업자: 박예미, 박예인(우아한형제들)
반생지수 ★★★★★

부작: 일고민수거함 근처

작업명: 이번 고비가 지나면 다음 고비가 온다

수거함 소재에 대한 고민이 치열했음
글판지로 결정하자마자 바로 퇴근함

작업자: 이화랑(타이니웍스), 이상은(우아한형제
들), 한규희(RPM)
업무 강도 ★★★★★

2022년 6월 27일 전시 설치중!!

작은 공간인데도 설치에는 항상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오후 2시쯤 시작한 설치가 10시 반이 되어 끝났다. 잘 될까? 잘 되겠지?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짧지만... 인상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일고민의 무게에 짓눌린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성수동에서 당신의 일고민을 삽니다!!!
성수동 오시는 김에 살짝 들려서 고민
팔고 가세요~~(클릭)

2022년 6월 28일 당신의 일고민을 삽니다 전시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책 전시... 과연 많이들 보러 오실까...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그랬는데!!! 많이들 오셔서 일고민을 팔고 가신다. 진지하게 일고민을 나눠주신다.
인간지능 수거함도 재미있어 하시고, 선물도 반가워 하셔서 감동 ㅈㅈㅈㅈ



다들 놀러 오실꺼죠? 프로젝트 리포트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죠?
 기다릴게요~ 익명의 너구리, 드래곤, 바다소, 블롭피쉬, 캥거루님~



... 인쇄 실수 발견.... 스티커 작업하기로 했다.... 또르르.....

2022년 6월 29일 전시 2일차, 눈 뜨자마자 날씨 확인



눈뜨자마자 성동구 날씨 확인하기 ... 💧

☔ 비오는 길에 들으면 좋을 노래 추천 🎵

1. 비도 오고 그래서 - 헤이즈
2. 비가 오는 날엔 - 비스트 (현/하이라이트)
3. Rain drop - 아이유
4. It's Raining - 비
5.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 에픽하이



바닥에 흠이 있어서 바닥보강도 했고요



앉아서 책 보시라고 의자도 셋팅!
다들 편하게 왔다가세요~~~

다른 사람들의 일고민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공개
[\[실시간 공개\] 인간지능 일고민 수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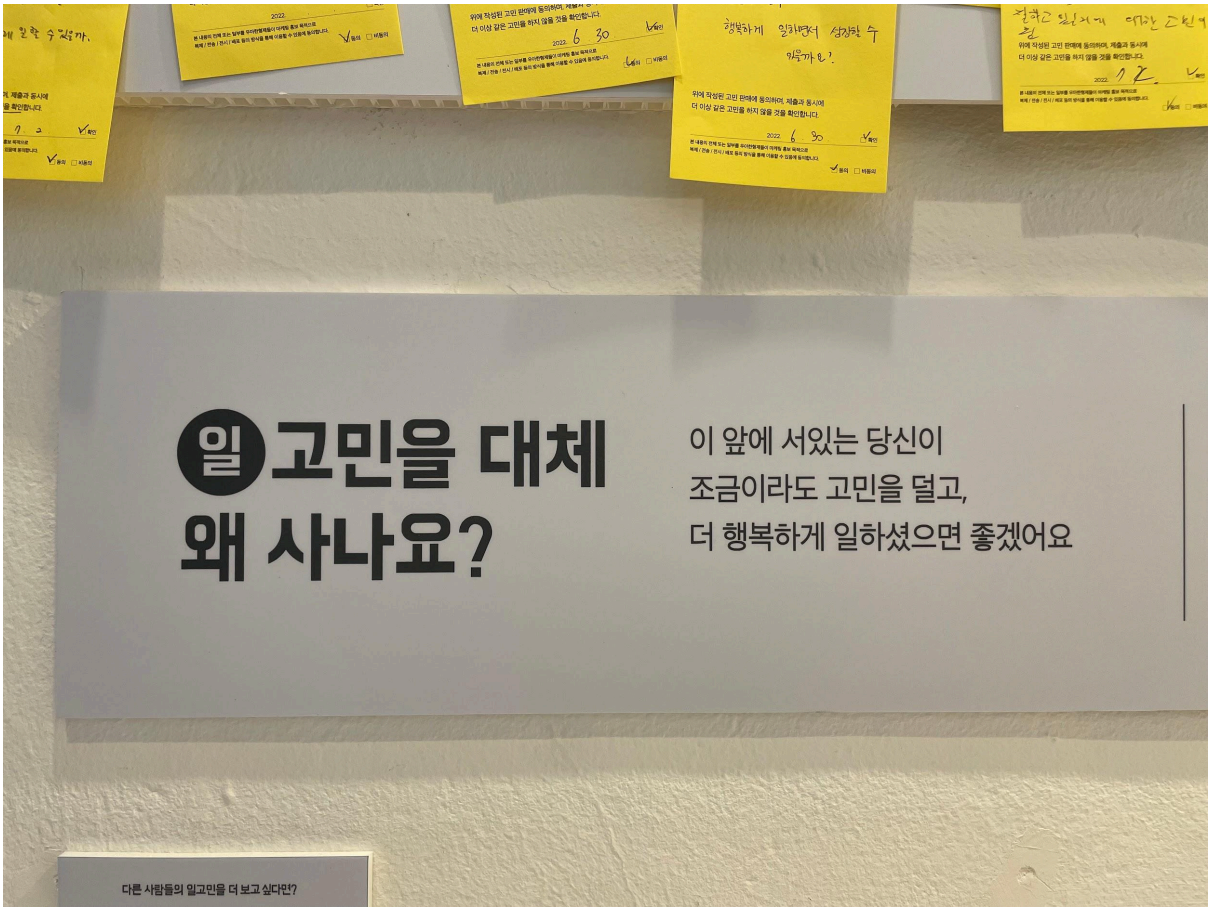
2022년 7월 1일 전시 4일차, 해뒀다!

어제 호우경보로... 오픈 이후 가장 적은 손님이 다녀가셨고 (비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고 + 금요일이라 많이들 오고 계신다!!



2022년 7월 2일 전시 5일차, 우리는 폭염 아니면 폭우...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일고민을 남기고 간다. 지나다 우연히 들어선 곳에서 자기의 일고민을 가만히 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다.

부디 고민을 쓰며 조금은 털어냈기를
다음 출근은 조금 더 행복하길 🙏🙏🙏

2022년 7월 5일 전시 7일차, 천개의 고민

오늘 팀 주간회의 시간에 한 번 더 나온 이야기.
오시는 분들이 고민을 얼마나... 남길까 했던 걱정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써서 팔고 가신다. 비슷하면서도 각각 다른 고민들. 쓰는 분의 연차도 다양하고, 직군도 다양하다.

이 고민들을 분석(?) 해보면 어떨까. 일고민을 사서 뒤에 쓰는지...를 고민했었는데 일고민 리포트로 만들어도 좋을만큼 많은 고민이 모일 거 같다.
아직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인 상태

2022년 7월 6일 전시 8일차, 추가 발주를 넣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어서 몇몇 책갈피가 소진, 또는 소진 예정이라 추가 발주를 넣었다.

틀린 건 없는 지 두 번, 세 번 체크체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에 인증이나 방문 후기가 제법 올라오고 있다.
그걸 보고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후기 보는 재미도 쏠쏠.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보고 있어요 (하트)

2022년 7월 8일 전시 10일차, 책이 팔린다

<이게 무슨 일이야>가 3쇄를 찍었고, 이제 곧 4쇄를 찍는다.
전시장에서도 책이 제법 팔린다.
책 파는 팝업 스토어로 기획하기는 했지만 과연 얼마나 팔릴까...팔리긴 팔릴까 싶었다.
그런데 준비했던 책이 다 소진되어서 내일 급하게 책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고민을 사고, 책을 판다.
손님은 고민을 팔고, 책을 사간다.

이제 전시는 토, 일 2일이 남았다. 끝까지 무사히 잘 해보자!

2022년 7월 11일 전시가 끝나고 난 뒤~

안녕하세요~ 익명의 밍크, 여우, 잭카로프, 코끼리, 물소님!



주말 동안 전시는 다녀가셨나요?

어제 (7/10 일요일) 12일 동안 진행되었던
<이게 무슨 일이야!> 출간 기념 전시 <당신의 일고민을 삼니다>가 끝났다.

무사히, 성황리에!
목표했던 방문객 수를 60% 초과달성했고 1,900여개의 고민을 샀다.
폭우와 폭염을 뚫고, 고민을 팔러 기꺼이 와 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함께 해준 동료들과 파트너사 분들께도

어제의 모습



오늘 비소식이 있다고 해서 어제 전시 종료 후, 철거를 바로 했다. (아쉬워 아쉬워)

이제 남은 일은

- 전시에서 수집된 고민 약 1,900개의 데이터화와 2차 가공 콘텐츠
- 전시 물품 정리하기 - 전시를 우아한형제들 내부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 디벨롭중
- 장소 렌트 보증금 및 책 값 정산
- 전시 회고

일 하는 과정을 남기는 프로젝트 리포트를 많이 봐 주셔서 전시 회고도 공개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전시 시작 36일 전부터 전시 종료 다음 날인 오늘까지 일총 50간의 프로젝트 리포트를 마칩니다.

그동안 읽어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회고록으로 다시 만나요~